



캠코, 교육격차 해소 나선다… 부산교육청 1.7억 기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개보수와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기부금 1억7000만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권남주 캠코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가운데), 김희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효성첨단소재, ‘밀원생태학습정원’ 조성

효성첨단소재는 울산시 울주군, 국립생태원과 함께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에 멸종위기 밀원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사업으로 멸종위기종 식물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통해 꿀벌의 먹이를 늘림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 및 멸종위기종 보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첨단소재



홈앤쇼핑-농협중앙회, 도농상생 환경조성 MOU

홈앤쇼핑은 지난 30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쌀 소비촉진 및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왼쪽)가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롯데, 1박 2일 ‘여성 리더 워크숍’ 개최

롯데 유통군은 1박 2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제2회 ‘롯데 유통군 여성 리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롯데 유통군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플러스’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0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0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전국 640곳의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차-WFP, 모빌리티 부문 파트너십 체결

〈유엔세계식량계획〉

전 세계 지속가능 발전 협력 장재훈 사장 “인류에 긍정적 영향”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기구와 힘을 합친다.

현대자동차는 유엔 기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과 모빌리티 부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이날 파트너십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신디 매케인(Cindy McCain) WFP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장재훈(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통해 대부분 화석연료로 운영되는 유엔 업무 차량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돕고 WFP와 함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WFP에 전 세계 주요 사무소의 이동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오닉 5를 제공하고 해당 국가들의 전기차 운영 인프라

한화에너지,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광양그린에너지 등 6개사 MOU

한화에너지등 6개 기업이 바이오매스 발전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한화에너지가 서울한화빌딩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기업 6개 사가 모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광양그린에너지, 씨지앤대산전력, OCI SE, GS EPS, 포승그린파워, 한화에너지 등 6개 기업이 참여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포승그린파워 김욱 본부장, OCI SE 강준구 본부장, 씨지앤대산전력 김영수 소장, 한화에너지 송용식 전무, 광양그린에너지 김재기 본부장, GS E PS 황태규 상무가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너지

한다.

이들 기업은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매스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인증 체계 구축 ▲유통 시장 건전화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10월 개정된 EU의 재생에너지지침과 같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협의회는 ‘제3자 인증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EU의 SBP(Sustainable Biomass Program) 등을 준용하여 산업계 주도의 자발적, 선제적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공인 인증 체계, 글로벌 인증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도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조성된 기금을 WFP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절감 프로그램 EEP(Energy Efficiency Program)을 수행하는 데 사용해 전기차 배치 지역의 충전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전기차 기술에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리더십과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아이오닉 5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 전 세계의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에너지는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스스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de@

인사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콘텐츠실장 양형욱 ▲편집국장 김홍재

◆법무부 ◇고위공무원 나금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민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인사지원 부부장 박용식 ▲저축은행리스크관리 부장 강호성 ▲금융안정실 실장 조계황

◆한국금융연구원 ▲ 디지털금융연구실장 서병호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장민 ▲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정호 ▲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지만수 ▲ ESG연구센터장 이석호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현태 ▲ 금융안정연구센터 부센터장 김현열

부음

▲ 윤순이씨 별세, 정황근(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씨 모친상 = 30일,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41-553-8000

▲진치재(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부녀회장 겸 고문)씨 별세, 김창남(전 동아대 교수·전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씨 모친상, 김근화(여성자원고교 이사장)씨 시모상 = 30일 오후 3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30분. 02-2227-7569

LG전자 “‘우와한 라이프스 굿 연구소’ 놀러오세요”

25일까지 팝업존 운영

LG전자가 오는 8월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그라운드220’에서 LG 랩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는 ‘우와한 라이프스 굿(Life’s Good) 연구소’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LG 랩스는 LG전자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소개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팝업존은 ▲맛과 향이 다른 두 가



우와한 라이프스 굿(Life’s Good) 연구소 ‘듀오보(DUOBO)’ 체험 공간. /LG전자

지의 캡슐을 한 번에 추출하는 캡슐커피머신 ‘듀오보’ ▲글램핑 고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본보야지’ ▲투명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탑재한 올인원 오디오 ‘듀크박스’ 등 이색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구소 테마로 꾸며진 이 팝업존은 콘셉트 제품이 개발되는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며 고객의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LG전자의 노력을 담았다.

/이혜민 기자 hyem@

LS전선, 대기업 최초 손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

LS전선이출산·육아제도 확대를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한다.

LS전선은 오는 8월 1일부터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들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녀 출생 축하금을 확대

한다.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7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 손자녀 2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기업 중 LS전선이 처음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있어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최대 2년간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